



# The United Methodist Church

CHICAGO AREA EPISCOPAL OFFICE

77 West Washington Street • Suite 1820 • Chicago, Illinois 60602

Office: (312) 334-0702

Sally Dyck

Bishop

E-mail: [bishop.dyck@umcnic.org](mailto:bishop.dyck@umcnic.org)

Rev. Arlene W. Christopherson

Assistant to the Bishop/Director of Connectional Ministries

E-mail: [achristo@umcnic.org](mailto:achristo@umcnic.org)

## Bishop Sally Dyck's Monday Morning Video August 31, 2020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나야만 가을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지만 왠지 9 월이 되면 여름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학생들은 (온라인 또는 대면수업)으로 개학을 맞이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낮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이 저를 슬프게 합니다. 저는 이제 다시 아침 일찍 어둠 속에서 달리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괜찮지만 찬바람이 거의 모퉁이를 돌아서며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전염병때문에 즐거움과 필요한 휴식과 한 해 동안 내내 해야하는 일들로부터 머리를 식히게 해주는 여름휴가를 제대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감리사님들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번 여름에 휴가를 가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구요? 아마도 집에 있으면서 소중한 휴가 날짜를 "낭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 휴가철에 우리는 새로운 곳을 방문하고 일년 동안 가보지 못한 많은 곳에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예배 준비로부터 떠나서 며칠 동안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며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이 모든 전염병이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 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중 하나가 그들에게 휴가를 좀 더주는 것이라고 제안해도 될까요? 그리고 그들이 아직 휴가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휴가를 가지도록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힘든 긴 겨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펜데믹이 잠재적으로 우울증과 불안의 유행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가 불안하다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고 혹시 다른 증상이 더 유발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목회자에게는 건강보험과 함께 Employee Assistance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제공됩니다.

그러나 제가 읽은 다른 내용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울증이 아니라 지루함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지루할 수 가 있을까요? 저는 매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저는 9 월 1 일 은퇴 후에 교단의 Ecumenical Officer로 임명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연말까지 교단을 대표해서 에큐메니컬 사역과 북일리노이 연회의 감독을 겸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이렇게 바쁘기 때문에 어떻게 지루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 게다가 우리는 요즘 대부분 집에 있게 되면서 해야할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팬데믹은 지루함을 만들어내는 완벽한 레시피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 갇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혼자 산다면 자녀나 손자/손녀들, 부모, 친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몇 달 동안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외식은 제한되었고 음식은 스스로 해먹도록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분 중에 몇몇 분들이 여름에 야외 콘서트, 박람회 및 기타 연례 행사 등등 즐겁게 참석하시던 일들이 올해는 취소되었습니다.

어쩌면 지루함이 바쁘다는 것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루함은 보통 자연스럽게 혹은 예기치 않게 사람들 간의 만남을 통해 발생하는 정신적 상호 작용의 감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아직 나가지 못하는 사무실의 부엌식탁에서 사회적 자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좋아하는 신나는 일이나 이세상에 있는 새로운 장소, 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때 사회적 자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끝나가는데 우리는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프로 (그리고 곧 학교) 스포츠가 없어서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매주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분 전환과 몇시간 동안이라도 일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즐거움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재난과 고통과 고통이 벌어지고있는 상황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런 단순한 일들을 즐길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팬데믹 때문에 못가다가 처음으로 미장원에 갔던 때를 기억합니다. 조지 플로이드가 살해 된 지 며칠 후였습니다. 헤어컷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미용을 하고나서 즐거워하고 있을 때 소셜 미디어에서는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모두가 헤어컷에 대해 그렇게 좋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저는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걱정합니다. 순간적으로 제 즐거움에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나 자신에게 단순한 기쁨의 순간과 기회를 허용한다면 실제로 더 많은 연민과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작은 휴식을 갖지 못하거나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시간이 없을 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력감을 주고 화나고 과민하게 만듭니다.

이름은 안 밝히고, 그의 이니셜이 BG인 저의 감리사 중 한 사람이 안부전화를 하며, 그가 어렸을 때 읽었던 해상에서의 일련의 모험 이야기인 CS Forrester의 "Horatio Hornblower"를 읽고 있다며 약간의 죄의식과 사과하는 것처럼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도피입니다! 왜 죄책감을 느끼나요? (사실, 나는 그가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가 더 학문적인 책을 읽어야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어쨌든 그에게 있어) 얼마나 즐거운 도피인가요? 그가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보는 것은 그의 지루함에 대한 정확하고 필요한 처방입니다! 여러분도 BG처럼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도피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삶의 참되고 순수한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제가 읽기로는 19 세기 중반까지는 지루함이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끊임없는 자극을 기대하지 않았고 삶의 지루함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루함을 피하려고 하게 된 것은 20 세기 소비 문화가 일어나면서부터 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수세기 동안 옛사람들이 알던 삶의 지혜를 놓치고 있습니다: 즉 바쁜 일상의 지루함속에서 찾을 수 있는 참되고 순수한 작은 즐거움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들과 다시 연결되어야 할 때입니다. 작은 즐거움을 즐기고, 맛보고, 가치 있다고 배워야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변화, 모험, 자극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에게 기쁨, 오직 그 순간에 느낄 수 있는 깊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 순간들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기른 토마토. (당신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새인지 아니면 밤 올빼미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출이나 일몰의 아름다운 순간들, 즐거운 얘기를 듣고 싶어했던 재미없는 오랜 친구의 예기치 않은 전화, 또는 나를 위해 쿼트 이불을 만들어준 제 친구처럼 쿼트를 만드는 몇 시간 같은 순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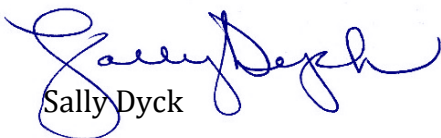
저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단순한 즐거움 (사랑, 창조적인 선물, 매력적인 이야기 (픽션과 논픽션) 등) 으로 다시 연결될 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즐겁고 관대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계산으로는 여름이 한 주 더 있습니다.

“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 (429장)

오래된 찬송이고 무엇에 영감을 받아 쓰여진 찬송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확실히 알기는 이 찬송이 경제의 호황, 완벽하게 건강한 몸, 스트레스 없는 가족, 잘 되는 사업, 활기 넘치는 20 대의 라이프스타일이었을 때 만들어진 찬송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추측하건대 사회적으로나 또는 어떤 개인의 삶에서 사람들이 고군분투하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도 바쁘지만 단조로운 삶 속에서 지루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름의 마지막 주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Amen!

  
Sally Dyck